

위기 속 빛난 나눔... 충북 사랑의 온도탑 '역대 최고액' 달성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료

62일간 88억원 · 143도 기록... 목표액 대비 26억5000만원 초과
개인 27억원 · 법인 69억9100만원 등... 고액 기부자도 4명 추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영수)가 62일간 진행한 '희망2021나눔캠페인'에서 88억원에 달하는 성금을 모아 사랑의 온도탑 143도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 모금액을 기록했다.
충북모금회는 1일 청주 상당공원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희망 2021나눔캠페인' 폐막식을 열었다.
이날 폐막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노영수 충북모금회장을 비롯한 충북모금회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충북모금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62일간 61억5000만원을 목표로 모금 캠페인에 돌입한 바 있

다. 올해 모금액은 현금기부 46억1800만원(52.5%)과 물품기부 41억7800만원(47.5%) 등 87억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성금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9년 나눔캠페인 119도(79억8000만원)보다 10.27%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사이어티 신규 회원은 4명이 탄생했다.
노영수 충북모금회장은 "충북도민은 어려울수록 이웃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졌다"라며 "귀중한 성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달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청주 상당공원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에서 희망 2021 나눔캠페인을 마치며 폐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충북도, 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시작

아스트라제네카 · 화이자 1만9000명분 우선 확보
의료기관 종사자 · 65세 미만 병원 입소자 등 우선

충북도는 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단계로 요양병원 · 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 · 종사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AZ) 1만6500명분과 화이자 2500명분을 우선 확보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2500명), 65세 미만의 요양병원 ·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9600명), 고위

험 의료기관 종사자(4500명), 역학조사관 · 구급대원 등 1차 대응요원(2400명)에게 접종된다.
1차 대응요원은 보건소, 119 구급대, 사설 구급대, 운전 기사, 코로나19 검사기관(보건환경연구원, 결핵연구원 등), 검역 및 출입국 관리 직원이다.
이를 위해 도는 백신 보관 등에 필요한 초저온냉동고 5대를 접종센터 5곳에 설치했다. 이달 말까지 나머지 접종센터 9곳에도 초저온냉동고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내 접종센터는 청주 4곳, 10개 시 · 군은 각 한 곳씩 운영된다.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치료병원 4곳의 종사자에게 사용된다. 종사자가 120명 이상인 충북대병원과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은 백신을 배분해주면 자체 접종한다.
120명 미만인 오송베스티안병원의 종사자들은 권역접종센터인 천안순천향대학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자체 접종하고, 요양시설은 축탁의 소속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한다.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위해 14개 보건소 방문접종팀도 운영한다. 접종

팀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2명으로 꾸려진다.
1차 대응요원(구급대원, 역학조사, 검사인력) 등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을 시행한다.
도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을 위해 전문의를 포함한 역학조사반과 민관합동신속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17일에는 청주시 소재 요양병원 1곳과 요양시설 1곳에서 사전 문제점 파악을 위해 예방접종 준비상황 점검을 시행한다.
김창희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하고,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관련기사 6면

충북경찰, 제2의 정인이 사건 방지 '총력'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신설... 전담 공무원 · 유관기관 협업 등 수사 집중

충북경찰이 아동학대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신설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5일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경찰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질적인 협업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찰은 아동학대 특별수사팀 신설을 공무원과 관계기관 담당자들에게 알렸다.
이와 함께 지자체 학대 전담 공무원과 협업을 통해 학대현장에 대한 동행출동 등 상호 협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충북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신설은 앞으로 도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전담 수사한다.
특별수사팀은 적절한 현장 대응을 위해 지자체 전담 공무원과 협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응급조치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2주 이상 치료 의사 소견, 학대의 심 상처(명 · 상흔 등) 발견 시 대상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내 ·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은 동일 피해자 사건 학대 징

후 조기 발견을 위해 수사팀 간 인 · 수 · 인계, 수사팀-학대예방경찰관(APO)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청소년 수사팀에는 APO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 경찰서 여경 기능은 모든 아동학대 사건을 대상으로 전수합동심사를 벌여 현장조치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충북경찰청 여성수사 · 아동청소년계는 사건 진행 상황 모니터링과 전수합동심사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9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학대 피해아동 사례관리를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출동에서 수사와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 경찰 · 지자체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사업 박차

LED조명 교체 · 가스타이머 록 보급 등 34억7000만원 투입

충북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34억7000만원(국, 도, 시군비 포함)을 투입해 도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은

취약계층 LED조명기구 교체사업(5억 2500만원, 499가구), 취약계층 가스타이머 록 보급사업(5억4800만원, 1만 750가구),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24억원, 8곳)이다.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은 일

반 조명기구를 고효율 LED 등 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매년 추진 중이다. 기초수급자,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거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 가스타이머 록 보급사업'은 도내 65세이상 경제취약계층 세대(경로당) 58,250가구를 대상으로 사

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스 연소기의 과열사고를 예방하는 타이머 록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LPG탱크, 배관, 고효율 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김형년 충북도 에너지과장은 "저소득층의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255-0504, 253-0504 FAX:(043)222-0504

H.P: 010-9566-0504 E-mail: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 · 스프링제본
칼라복사 · 칼라출력
대형코팅 · 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제천시 셋째아 출산자금 수혜자 탄생

두 가정 선정... '3쾌한 주택 자금 지원 사업' 일환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시 "지원 방안 지속적 연구"

제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인구증가시책인 '제천시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의 첫 주택자금 수혜가정이 지난 1월 18일 나온 가운데 셋째아 출산으로 출산자금 지원 수혜를 받은 두 가정이 탄생했다.

시는 출산자금지원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상 가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선정을 축하하기 위해 봉양을 행정복지센터와 화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축년 출생 기념 선물(제천에서 태어났'소)을 전달하며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을 다시 한 번 나눴다.

수혜 가정 구성원들은 "셋째 아

이의 출산의 기쁨이 가장 크지만 제천시에서 지원해주는 출산자금을 받게 되 경제적 부담도 덜고 든든하다"며 "앞으로도 우리지역 부부들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시가 기존 지원 제도의 틀을 깨고 추진하는 '3쾌(快)한 주택 자금 지원 사업'은 주택자금지원과 출산자금지원 두 가지로 나뉘어 구성돼 있다.

먼저 '주택자금지원'은 결혼 후 5천만 원 이상 주택자금대출(매매, 전세)을 받은 가정에서 신생



이상천 시장과 홍석용 의원이 셋째아를 출산한 봉양을 AMI 부부에게 출산자금 지급 약정서와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아 출산 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첫째 150만원, 둘째 최대 1천만원, 셋째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주택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후 신청할 수 있는 '출산자금지원'은 첫째 120만원, 둘째 800만원, 셋째

이상 3천2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상천 시장은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가 주거·출산·양육에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 다자녀 가구에 등록금 지원

세자녀 이상 양육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감

제천시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세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자녀 모두 제천시에 3년 이상 계

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며 학기당 최대 100만원의 학자금을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한다.

다만, 대상 학생이 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타 장학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을 지원해주며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의 1학기 학자금은 오는 5월 31일까지, 2학기 학자금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제

천시청 홈페이지 소식알람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천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607명에게 5억2천9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해준 바 있다.

청주시-시니어클럽 공원 환경정화 MOU

청주시가 18일 상당·우암·서원·흥덕 시니어클럽과 '노인 사회활동'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참여해 도시공원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전년보다 30% 증가한 지역 어

르신 700여 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등 생활권 도시공원 167곳에서 환경정화 활동, 위험시설물 모니터링, 어린이 안전관리 등 다양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와 시니어클럽은 연말까지 참여 노인들이 안전적이고 원활하게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 대상지로 도시공원을 제공하고 정화 활동에 필요한



청주시가 18일 관내 4개구 시니어클럽과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노인 사회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시니어클럽은 참여자 모

집, 선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협약했다.

음성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10대에 해당 700만원... 선착순 선정

음성군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는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 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LPG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규 구입할 경우 10대에 한해 해당 700만 원의 보

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9~15인승 LPG 연료 승합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한 차량 소유자이다. 특별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기 존의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아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5일부

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음성군 청 환경과(043-871-3792)로 제출하면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하 운호 군 환경과장은 "통학차량의

LPG연료 사용으로 어린이 건강 보호는 물론 미세먼지 저감 효과로 대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영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sn@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진천군, 올해 하반기부터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가동

통합일자리지원단 신설... 5640명에 일자리 제공 계획

진천군은 도내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군민 개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달 조직개편에서 일자리정책 수립과 종합적인 추진을 책임질 통합일자리지원단을 신설했다.

일자리통합 컨트롤 타워인 통

합일자리지원단은 체계적인 일자리 현황 분석과 제도적 기반 마련, 군민이 공감할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

이어 군의 단독 일자리 정책 수립·결정·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고용시장의 질을 높이고자 교육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등으로 일자리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군은 이 같은 제도와 조직 등으

로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직접(공공) 일자리 3180명,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2460명 등 56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여러 경제 지표에서 진천군이 높은 순위에 오르며 좋은 결과물을 내고 있지만, 지역성장세를 더욱 가파르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선 신규 일자리 공급으로 성장의 허기를 강화해야 한다"며 "통합일자리지원단을 중심으로 촘촘한 고용 안정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도내에서 3년 연속 고용률 1위를 기록했다.



진천군은 지난달 29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온라인 협약을 맺고 현판을 제작했다.

진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박차'

여기부와 업무협약... 2025년까지 성 평등정책 구축 등 추진

진천군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군은 지난달 29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온라인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모두가 평등한 지역사회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현안사업으로 내세우고 지난 2년간 행정역량을 결집한 결과, 지난해 12월 30일 여성친화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5년까지 성 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를 중심으로 31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력이음 플러스, 농산물 전자상거래 매니저 육성, 농촌 안심환경 조성, 이주

여성이 함께하는 다중언어번기 활동, 틈새돌봄 지원 사업, 양성 평등 대학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향후 5년 동안 여성가족부로부터 전문가 컨설팅, 정책형성 교육, 민·관 협력지원 등을 지원받으며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여성친화도시의 핵심가치인 형평성, 참여, 돌봄, 소통이 실현되는 진천군 조성을 위해 5대 목표를 중심으로 핵심 사업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주시,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예산 3억800만원 확보... 2750여 가구 혜택 전망

충주시가 취약계층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5월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을 위해 올해 3억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75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면서 건강보험료

를 납부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하는 지원이다.

시는 건강보험료체납으로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해보다 8천64만 원을 증액해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가

16,030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 부모 세대로 매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확인을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명숙 충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보험료 지원이 어려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월 푸드뱅크·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엔푸드, CJ신선 진천센터, GS리테일 발안물류센터, 롯데칠성 광명센터, CJ나눔 계룡센터, CJ수원본점센터, 대상 양지센터, 대상 용인저온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낙농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중원랜드, 한우협회, (주)파나산, (주)대승푸드, 롯데푸드, 체리부로, CJ윙(충청점), 송림푸드, 청주윙, 에버리치, CJ신선 덕평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중앙제관(주),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LG생활건강, (주)엘로드림, 송림푸드, 대상 덕평센터, 시아스 청주공장, 영농법인 무지개농장, (주)더불어, (주)피아씨푸드, (주)금강B&F, KGC인삼공사 충북지점, 투샘플레이스, 참약식품, 라온에스, 주식회사 지지코리아
- **청주사람나눔푸드뱅크**
참조은유동, 멜리스(분평동), 백색유동, 홀플러스익스플러스 좋은아침(가경점), 파리바게뜨(개신점), 파리바게뜨(북대점), 비누이투, 좋은아침(북대점), 두레주르(비하계동점), 단킨도너츠(강서점), 팜스팜스, 롤링핀(지웰시티점), 이초트베이커리, 금관마트, 동정주오뚜기, 초이스베이커리, 플로리안, 좋은아침(성안점), 좋은아침(성화점), 파리바게뜨(가경대우), 정도너츠, 바로구운빵, 도담영농조합법인, 청풍명월, 명성물류, 머거바식품, 자연솔푸드, 푸드글로벌, 한솔, 비전상사, 태성운수, 도담, 등고개농장, 제훈윙동, 장수윙, 오뚜기대리점, 중앙제관(주)
- **청주드림푸드뱅크**
파리바게뜨(원평점, 분평우성점, 금천부영점, 산남점, 농협하로점, 용암효성점, 용암현대점, 건영점, 뉴타운점, 율랑칸타빌점, 율랑점, 개신점, 수암골 영광의제인, 좋은아침 오송점, 서문우동, 용암서문우동, (주)떡과풍경, (주)민영, 김태환베이커리
- **청주제일푸드뱅크**
청주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 (주)한백식품, 두레주르 율랑점
- **청주구세군푸드뱅크**
주식회사 시아스, 두레주르 금천정자점, 파리바게뜨 분평점, 한솔 제2농장, 공천떡점, 금관할인마트, 해신수산, 두레주르 금천뉴타운, 따베오 베이커리, 행복8떡집, 유신짬뽕,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떡이랑, 두레주르 청주용정점, 파리바게뜨 청주용암점, 영농조합법인 회여물, 홀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용암점, 천명영농조합법인, 정수기획(홍성사), (주)월드이십일메이커, 자연애연합영농조합법인, 천명, 김가네 생고기정육점,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주주랜드, 서울우유지스, 시아스윙동, 두레주르 분평점, 목행청과, 금관할인마트 율랑점, 청주특대(주), 무위에뚜와
-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산과들F&C, 파리바게뜨 오창중앙점
- **증평군푸드뱅크**
거림기점, GS슈퍼 증평점, 케익하우스, 금호숯불갈비, 서산식품, 좋은아침 율랑점, 파리바게뜨 내수점, 한그루식품, 오뚜기, 단바상사, 단킨도너츠 증평점, 멜리퀸 증평점, 그린윙동, GS25 증평대리점
- **괴산군기초푸드뱅크**
진미식품, 괴산잡곡, 신선노포, 신선촌, 운산식품, 제중당약국, 풀무원, 서미숙, 유인숙, 장곡희, 따베오베이커리, 두레주르괴산점, 파리바게뜨괴산점, 매키로통상, 미미식품, 한살림축산식품, 주성베이커리
- **옥천군푸드뱅크**
두레주르 엘마트점, 구가네 농이보강, 조마루 갑자랑, 독도가든, 행운목, 미개(한정식), 이기화로, 옥천청담로타리클럽, (주)한일푸드
- **영동나눔푸드뱅크**
두레주르(김홍국), (주)베일영육공
- **보은군기초푸드뱅크**
서울우유(보은점), (주)서울향료,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다농원, 삼농농장, 영농택방앗간, 김이박부대찌개, 단킨도너츠(금양)(주)이가자연면, (주)후드원, 김점철소머리국밥, (주)맑은해오름, (주)풀무원, (주)맑은식품
- **진천군푸드뱅크**
삼진푸드, 두레주르(성모병원점), 면사랑, 체리부로, 조인, 묵우촌, 동원(이천,백암), 삼육두유, 파리바게뜨(덕신점)
- **진천나눔기쁨푸드뱅크**
파리바게뜨 진천장관점, 태남 메디스코, 신도식품, 윤지영, 김경식, 리브가왕만두짬뽕, 김수혁, 델리퀸(이월점), 에스엔푸드, 자혜식품, 명가학집, CJ푸드빌, 해마루푸드서비스, 파스쿠찌, 행
- **복합 떡집, 이삭식품, 명가떡집, 생거진식품, 맑은해오름**
- **충주기초푸드뱅크**
고인물식품, 대하윙동, 멜리퀸충주교현점, 떡보이하루, 두레주르 주덕점, 롯데제과(주)충주영업소, 삼성청과윙동, 삼일상회, 서울우유지스충주대리점, 유원윙동, 육사청과, 은혜청과, (주)미림농산, CS코리아, 지미원에프앤지, 충주청과, 하나로베이커리(충주점), 한아름청과
- **제천시푸드뱅크**
건국유업, 두리메리케, 롯데제과 제천, 박달재사, 푸드, 문우통, 씨알푸드, 오뚜기 제천점, 오뚜기, 태성김치, 푸른촌, 풀이원, 365할인마트, 크리스피크림제천중앙점, 호수상사
- **단양나눔기쁨기초푸드뱅크**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광주파리크라사업체, 신선초, 하림, 맑은식품, 한돈, 섀넬이푸드, 대상청정원

옥천군 '안전 먹거리' 공공급식센터 건립

옥천푸드유통센터 일원 20억원 투입... 2023년 본격 운영

옥천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질 공공급식센터가 생긴다. 옥천군은 옥천푸드유통센터 일원에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체계를 일원화한다.

군은 지난달 27일 충청북도가 공모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최종 선정돼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고 군비 10억원을 합한 총 20억원을 투입해 2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계획을 수립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는 센터 완공과 시범 운영 이후 2023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하며 지역 내 학생 4000명과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친환경 지역산 식재료를

공급한다. 센터 건립으로 학교에 납품되는 식재료를 학교 개별 발주체계에서 공공급식센터의 일괄발주·일괄공급 체계로 전환되며, 공급체계 일원화를 통한 유통경로 축소에 물류비용을 대폭 감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지역 생산 우수농산물 공급으로 생산농가의 판로가 확보돼 지역 중·소농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교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김재중 군수는 "공공급식센터는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신선한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수한 친환경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소득 향상과 주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옥천군 저소득 모범학생에 장학금 약정

동이면 조현분씨 3년간 7200만원 약정 기탁



옥천군 동이면이 고향인 조현분씨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7200만원을 약정 기탁했다.

지난달 29일 옥천군청에서는 어려운 가정에 희망을 나누는 장학금 약정식이 열렸다. 이날 약정식에서 동이면이 고향인 조현분(54·대전) 씨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모범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3년간에 걸쳐 7200만원을 기탁하기로 약정했다.

이 장학금은 학교장과 옥천읍장의 추천을 받은 취약계층 모범학생 4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 씨는 이 학생들 가정에 3년간 매월 200만원씩 총 7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2021년 2월

부터 2024년 1월까지 3년간 매월 지역 내 저소득 모범학생 계좌로 자동이체 될 계획이다.

조 씨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3년동안 7200만원을 기탁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날 약정식에 참여한 정모(16) 학생은 "장학금 덕분에 문예집 살 때나 학원 다닐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후원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재중 군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용기 있는 학생들을 보면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 내 저소득 모범학생을 위해 기부활동을 펼쳐 주신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괴산군 어린이집 4곳 대상 특화사업 추진

3월 1일부터 500만원씩 지원... 보육 환경 개선 도모

괴산군이 어린이집 4곳을 선정해 보육환경 개선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16일 '어린이집 특화사업'을 공모해 4개 어린이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보육현장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해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군은 연중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 지난날 11일부터 22일까지

지 신청을 받은 결과 군내 어린이집 11곳 중 8곳이 사업에 응모했다.

군은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창의성·효과성·지속성·적정성·노력도 등을 평가했다.

이에 음악놀이와 함께하는 지구환경교육(사리어린이집), 파파데이 같이 노는 이빠(문무어린이

집), 영어특화(전원어린이집), 피어나는 놀이터(송면어린이집) 등이 뽑혔다.

군은 오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들 프로그램에 500만 원씩을 지원해 운영한다.

아울러 내년 1월 자료집을 만들어 군내 전체 어린이집에 배부할 계획이다.

신미선 군 주민복지과장은 "특화 프로그램은 지역을 자원삼아 어린이집별 특성과 환경을 살렸다"며 "부모와 아이가 즐거운 보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청년 역량강화 배움 지원사업' 추진

학원 수강료 등 자기개발 비용 1인당 20만원 지원

괴산군은 올해 처음으로 '청년 배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취·창업과 자기개발 비용 일부를 군이 지원

하는 게 목적이다.

학원(온라인) 강의 수강료,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교재 구입비 지출비용의 80%인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사후 지원한다.

학원(온라인) 수강이나 자격증 시험 신청일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학원수강은 출석 80%, 온라인 수강은 진도율 8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예산은 600만원으로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공공기관 종사자와 운전면허자격증이나 단순 취미활동(요가·헬스) 등은 제외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취·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근로자에게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보은군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25% 인상 지원

보은군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올 1월부터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5천 원으로 25%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18세 미만 취약계층 400여 명의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급식이 이뤄지도록 물가인상 등의 요인을 고려해 기존 4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인상된 급식비를 지난 1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급식단가를 점차 인상해 급식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층 가정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다.

군은 이들에게 결초보은 상품권,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급식을 희망

하는 가정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안진수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급식비 단가인상이 균형 잡힌 식사 제공으로 이어져 중요한 성장시기에 있는 결식아동의 영양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팀(043-540-3853)로 문의하면 된다.

중평군 장애인복지카드 One-stop 배송

충청지방우정청과 맞춤형 계약등기 업무협약

중평군은 올해부터 장애인복지카드 One-stop 배송서비스를 시행한다.

2일 군에 따르면 군은 충청지방우정청과 장애인복지카드 맞춤형 계약등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송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1회 방문만으로 장애인복지카드와 복지혜택 안내문을 등기로 본인의 희망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과정은 기존 6단계에서 군청과 읍·면사무소 경유가 생략된 3단계로 간소화하고 민원인 방문횟수는 2회에서

1회로, 발급 기간은 15일에서 4일로 단축했다.

또한, 총 3회까지 등기로 배송되며 수령인 부재로 3회 이상 배달이 안되면 신청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여건 속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면 최소화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평군보건소, 온라인 임신부 등록 도입

중평군보건소가 온라인 임신부 등록서비스를 도입해 임신부들이 편리하게 출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를 방문해 임신부 등록하면 임신부에게 임신제 및 철분제를 제공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다른 보건업무가 중단돼 방문이 어려운 임신부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비대면 방식의 임신부 등록 서비스를 마련했다.

임산부 온라인 등록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가능하며,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산모이름, 분만예정일이 표기된 페이지)이나 임신확인서의 이미지를 파일로 꼭 첨부해야 한다.

최초 등록 시 마스크를 제공하

며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임신제와 철분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택배배송은 불가능하므로 각 가정을 방문해 비대면으로 전달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슬기로운 임신생활을 위해 임신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기 바라며 모두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보건소 모자보건실(043-835-4226·4235)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군, 비대면 구강보건사업 '눈길'

'친절한 구강건강 HOME 키트' 대여... 바른 습관 형성



영동군보건소의 친절한 구강건강 HOME키트.

영동군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추진중인 비대면 가정 구강보건사업, '친절한 구강건강 HOME 키트 대여'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구강보건사업 활동이 한시적 중단된 시점에서 실효성 높은 구강건강 시책이다.

양치질 후 치아의 청결 상태를 곧바로 확인 해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친절한 구강건강 HOME 키트에는 치아세균체크기(텐티노트)와 치면착색제, 구강건강길라잡이, 온가족 칫솔, 치실, 치간칫솔, 1달분의 불소양치용액 등 7종의 구강건강관리용품으로 알차게 구성돼 있다.

앱(APP)을 통해 구강 내 세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나와 가족의 치아청결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맞춤형 치아관리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온 가족이 직접 체험하고 기록하여 스스로 구강관리를 할 수 있게 돕고 2주후에는 치아 세균체 크기만 남남하면 된다.

연말까지 매월 선착순 10가구를 선정하며, 희망 주민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구강보건센터(043-740-5607)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재제 개월 및 기탁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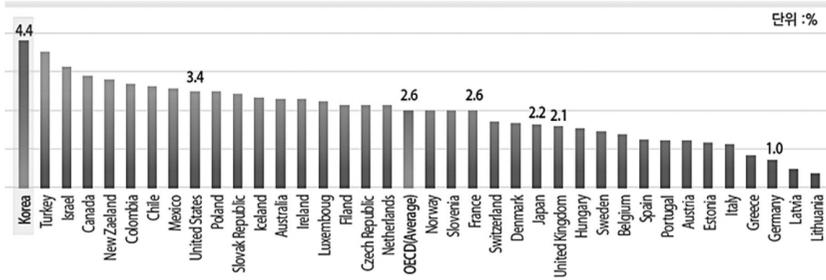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한국, 고령화·노인빈곤율 1위... 대비해야

(OECD)

●한경원 OECD 37개국 분석 결과 26년 뒤 가장 나이 든 나라 예상 사적연금지원 강화 등 대책 제안 고령자 일자리 제공 기회 늘려야

< 2011~2020년 OECD 고령인구 연평균 증가율 >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빨라 2048년께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노인빈곤율도 이미 OECD 최고 수준이라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 기능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원)은 17일 OECD 37개국의 고령화 속도와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한경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 증가했다. 이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급속한 고령화로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은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치솟을 전망이다. 세 명중 한 명은 노인이라는 얘기도.

또 2048년엔 37.4%까지 오

며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경원은 전망했다. 빠른 고령화 속도에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 수준은 이미 OECD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인빈곤율은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했다.

주요 5개국(G5)인 미국(23.1%)과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보다도 높았다. 한경원은 한국과 G5의 고령화 대응책을 비교·분석해 고령화와 노인 빈곤 대책으로 사적연금 지원 강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고령층 민간일자리를 수요 확대 등을 제안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공적·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43.4%로 은퇴 전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G5 국가들은 평균 69.6%에 달했다. G5 국가들은 사적연금 납입금 대비 세제 지원율도 2018년 기준 평균 29.0%였다. 이중 미국은 41.0%나 됐다. 또 생산가능인구 사적연금 가입률은 평균 54.3%로 2명 중 1명 이상이 사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은 사적연금 세제 지원율과 사적연금 가입률이 각각 20.0%, 16.9%에 그쳤다.

또 G5 국가들이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현재 65~67세 사이에서 67~75세까지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한경원은 한국은 파견·기간제 규제와 높은 해고 비용 등으로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 고령자 취업이 어렵다며 이런 시장 구조가 노인 빈곤율을 더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원 경제정책실장은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 연금기능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한국도 G5 국가들처럼 호봉급보다는 직무성과급으로 전환하는 등 유연한 노동시장 관리책으로 고령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활동제약 발달장애인 가족이 돌봐도 지원한다

거리두기 15~3단계서 한시적 허용... 돌봄부담 가중 해소

정부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발달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활동 지원 급여를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활동지원 가족급여' 서비스를 허용한다.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활동 지원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대상자의 가족이 급여를 직접 제공하면 급여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 이상일 때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로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도전적 또는 돌발적 행동 등 행방 문제가 있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 전담 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된 급여도 적용한다.

또 그간 자가격리자에만 제공됐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는 확진자까지 확대하고 복지기관이 휴관했을 때는 긴급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지원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17곳 선정

보건복지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건강 분야 사회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2021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17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은 고용 불안 등을 겪는 청년층이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신체·정신적으로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시작한 사업이다.

17개 시도별 사업단에서 청년을 직접 채용한 뒤, 운동·식생활 개선이나 심리지원·스트레스 예방 등 신체·정신 건강 개선에도

움이 되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

선정된 사업단은 이달 중으로 한 곳당 10명씩 총 170명의 청년을 직접 채용해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채용 인원의 20% 이상은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또, 한시적인 일자리를 끝까지

양도록 채용한 청년에게는 사업 종료 후에도 유관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해주거나 관련된 전문 분야 창업에 필요한 상담·교육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단 참여를 희망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청년들은 각 시·도 홈페이지, 각 지역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의료진에 아이돌봄 지원비 확대

방역 최일선 근무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 등 대상 소득수준 무관 60~90% 지원... 시간·요일 제한도 없어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병원이나 선별검사소 등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인력과 지원 인력이자.

정부는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0~8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인력에게는 60~9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기준으로 비용 부담은 시간당 1만40원에서 4천16원으로 60.0%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 시간과 요일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진과 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이 정확히 판정되기 전이라도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신청하면 바로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많은 아이돌보미가 활동할 수 있도록 미활동 아이돌보미와 보육·유치원교사 자격 소지자의 활동을 유도하고, 신규 아이돌보미를 조기 선발하는 등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 문제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몹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례지원으로 오늘도 맘에 쫓겨 보호복을 입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 걱정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확대된다

퇴원 일주일 전→3일 전까지로... 편의성 'UP' 7일 미만 입원·퇴원일 미정 사례 등 고려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신청 기한이 기존 퇴원 1주일 전에서 퇴원 3일 전까지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재난적 의료비는 중증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 소득의 15%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3천만원 이내에서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다.

환자는 의료비가 나온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후 신청을 하거나, 입원 중에는 조기 지급을 위해 퇴원 1주일 전까지 의료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입원 기간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일이 7일 전에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미 소

득·재산 정보가 파악돼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청 기한에 좀 더 여유를 둔 것이다.

입원 중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면 의료기관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만 결제하면 된다. 공인식 복지부의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환자의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한을 확대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고 빠르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시작

행복센터 방문 절차 개선... 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청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당초 청년 주거급여는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온라인으

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관련 구비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



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1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봉사단 위촉 기준

1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활동 분야

구분	내용
기술·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동·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행정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	무로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입무보조 등
교통·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4. 봉사단 혜택

- 1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충북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 1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1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 1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5. 신청 및 문의

1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김민지 코디네이터

전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월드비전 충북본부 신입생 입학용품 지원

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 34명 위해 1천만원 전달 월드비전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 큰 도움 됐으면”

월드비전 충북지역본부 용암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은영)은 17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에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청주시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아동 34명을 위한 입학용품 구입비 1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월드비전 충북지역본부 용암종합사회복지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급학교에 입학함에 있어 입학용품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에게 초등학교 입학 각 20만원, 중·고등학교 입학 각 30만원씩

지원한다.

신입생 입학용품구입비를 지원받는 아동들은 교복을 제외한 학용품이나 가방, 체육복 등 입학 후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영미 교육장은 “월드비전이 청주 지역의 상급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아동들에게 입학용품 구입비 지원을 통해 아동과 가정에 큰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고 했다.

박은영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장은 “저소득 가정 아동



월드비전 충북지역본부 용암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들이 17일 청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입학용품 구입비 1000만원을 전달했다.

들은 상급학교 입학에 축하받아 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담이 되고 있어 서 이번 입학용품 구입비 지원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우수 치매안심센터 5곳 선정

청주 상당·음성 우수... 단양·충주·진천은 장려기관 도, 센터별 추진 특화사업 중 우수사업 타지역 전파 검토

충북도와 도 광역치매센터는 2020년 각 시·군·구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된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우수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도는 최우수기관에 음성군 치매안심센터를 선정했고, 우수기관에 청주시 상당구 및 단양군 치매안심센터, 장려기관에 충주시·진천군 치매안심센터를 각각 선정했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적극적인 실현과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이번 평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업기간, 평가지표 등을 두 차례 변경한 바 있다. 이어 시·군과 협의를 거쳐 치

매안심센터 역량강화, 치매안심센터 서비스운영, 지역기반 치매관리사업, 시·군·구 치매 특화사업 등 4개 영역 6개 항목 15개 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특히 '20년에는 도가 지역중심의 치매관리사업 정착을 위해 각 센터별로 특화사업 추진을 요청하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의 꼼꼼한 평가가 이뤄졌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음성군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부심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례관리프로그램(부부치매 맞춤형 1:1 매칭 프로그램 운영)을 시도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단양군의 치매선별검사 무경험자를 찾기 위한 사업(1616열린치매센터)과 청주 상당구의 미술, 원예활동 등을 통해 치매환자의 인지재활을 돕고자하는 사업(당동~ 문화배달왔어)도 특색 있는 사업이었다는 평가다.

충북도는 우수기관 5개소에 대하여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각 센터별로 추진된 특화사업 중 우수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를 통해 타 지역으로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2020년에는 치매안심센터 직원 상당수가 코로나19 지일업무로 차출되는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 것은 사실”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치매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업무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

보은군 최첨단 영상장비 ICT 754대 보급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신속 대처 가능 스마트 기능 탑재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박미선)은 24시간 365일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과 응급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를 위해 최첨단 영상 장비

754대를 보급한다.

보급된 영상 장비는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의 센서로 구성돼 있다.

독거노인 주택에 일어날 수 있

는 화재나 낙상 등 건강 이상을 실시간 감지해 소방서 등과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어르신의 의약품 복용 시간 등을 알려주는 스마트한 기능까지 탑재됐다.

박미선 관장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 장비 보급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서비스

로 다가갈 수 있으며 사각지대 어르신들의 총출한 사회안전망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진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이면 신청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043-544-5446)으로 하면 된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취약계층 난방유 후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와 충북주거복지센터사회적협동조합이 취약계층에 난방유를 지원하는 후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주거복지센터협동조합과 MOU 48세대에 960만원 상당 지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는 충북주거복지센터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덕수)과 함께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960만원의 난방유를 지원하는 후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주거복지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은 수급권자를 제외한 일반도민 중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

으로 인해 추운 겨울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세대에게 1세대당 20만원의 난방유 주유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충북도내 11개 시군으로부터 지원자를 추천받았으며 따뜻한 설명절을 맞이 할 수 있도록 등유 교환이 가능한 주유권을 명절 전에 각 세대별로 전달했다.

이화정 센터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과의 연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주시 장애인·기업 상생 일자리 추진

5600만원 지원... 장애인 훈련생 취업 이어지도록 기회 제공

충주시가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한)을 ‘1인1기 장애인·기업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5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이 기업 현장에서 직접

직업훈련을 받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훈련생을 받은 기업은 작업 현장에 적합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

다. 해당 기업이 훈련 대상자의 20% 이상을 채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3개월간 1인당 월 16만 6670원의 훈련지원금을 지원받는다.

또 훈련에 참여한 장애인은 3개월간 하루 3시간씩 직업훈련을 하면서 최대 50만원의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구직을 희망하는 20세부터 60세까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상담·평가, 면접 지원을 실시하고 현장 훈련 장애인에게 위생키트와 안전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기업은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http://www.cbr.or.kr) 또는 장애인일자리센터(☎070-4221-9904)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노인보호·학대 예방 ‘온 힘’

노인종합복지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업무협약 상호복지발전 의견교류·정보교환 등 협력 약속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준환) 부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충북광역지원기관은 18일 충



18일 진행된 노인보호사업 중진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사업 중진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노인학대 예방교육 지원 및 업무협조, 상호 복지발전을 위한 의견교류 및 정보교환, 기타 상호 협력 상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위해 상호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은 “지역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여 노인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해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충북광역지원기관의 역할을 맡아 도내 23개 수행기관의 운영 지원,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수행기관과의 업무협력 등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노인의 욕구충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적인 돌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기섭 군수와 박충서 센터장이 ‘엔택트 마음백신 키트’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천군·자원봉사센터 ‘마음백신 키트’ 전달

진천군과 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충서)는 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저소득의

키트를 전달했다.

군 신규사업인 저소득 의료계층 언택트 마음백신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됐다.

청소년 봉사자가 직접 그린 그림과 양말 폭으로 만든 방식 등으로 구성된 키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대상 가구 5곳에 전달됐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이번에 전달한 키트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다른 마음백신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고용및직업
- 주거지원
- 보육및교육
- 의료및건강
- 요양및돌봄**
- 정신및심리정서지원
- 문화및여가
- 권익보장및법률
- 일상생활지원
-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눔미/종일/노인**
-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의료진 첫 접종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 계획

정부 '일상 회복 위한 코로나19 전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계획' 발표... 요양병원 입소자 등 1분기, 65세 이상 등 2분기, 19~64세 등 3분기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 "집단면역 되기까지 마스크 쓰기 등 수칙 준수해야"... 백신 선택권 없어·예진으로 적합성 검사 후 실시



일상 회복 위한 백신 접종 계획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의료진에 이어 1분기 요양병원 등 입소자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노인 등, 3분기 19~64세 성인 등의 순서로 백신을 접종한다. 정부는 1월 28일 이런 내용의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증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고려했다.

여기에 해외사례, 백신의 효능 및 안전성 검토 후 전문가, 의뢰계 등과 함께 사전에 긴밀히 논의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감염병, 예방의학, 면역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방역 목표와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하며,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콜드체인(냉장·냉동 물류) 유지 등 빈틈없이 관리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의료기관 의료진 국립중앙의료원서 첫 접종

처음으로 백신을 맞는 대상군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와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들이다. 1분기인 2월부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4만 9000여 명과 요양병원·시설 관련자 78만 명이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이어 3월 중순부터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에 근무하는 보건 의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인 119 구급대·역학조사·검역요원·검체 검사 및 이송요원 등 44만 명이 접종을 받는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을 하되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해 방문 접종을 시행한다.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

한다. 이후 3개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중부, 호남, 영남 권역 감염병전문병원)로 확대 시행하면서,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해 의료기관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2분기인 5월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들 85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코로나19 취약 시설 입소자·종사자 90만 명도 2분기 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고위험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과 약국에서 근무하는 보건 의료인 38만 명도 2분기 접종 대상이다.

하반기부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3분기부터 만성질환자와 성인(19~64세)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행되고, 4분기부터는 2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이 진행된다. 해당 접종 기간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마지막 순위로 밀리게 된다.

정부는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진에 이어 1분기 요양병원 등 입소자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노인 등, 3분기 19~64세 성인 등의 순서로 백신을 접종한다.

각 분기별로 묶인 대상군 중에서 어떤 대상군이 먼저 백신을 맞을지는 다음에 확정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는 일단 백신 접종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임상 결과에 따라 접종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접종 계획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백신 도입 일정·물량 등 변화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될 수 있다.

정부는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한 경제 활동으로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다만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관부처 심사 뒤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받게 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백신 전담심사팀이 안전성 검토 후 승인

그동안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및 개별 계약사(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와 전 국민 예방접종에 충분한 총 5600만 명분의 다양한 종류별 백신을 구매 계약했다.

또한, 백신 수급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개별 계약사를 통해 계약한 백신은 아

스트라제네카는 1분기부터,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범부처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코백스를 통해서 1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시기와 물량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국내에 개별 계약사를 통해 도입되는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의 전담심사팀이 3종의 외부 전문가 자문 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충실히 검토한 후 허가와 출하를 승인한다. 개별 백신 허가 전 코백스를 통해 조기에 도입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 승인 현황을 참고하고 질병청과 식약처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례수입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전한 백신 유통과 보관 체계 마련

코로나19 백신은 제조사별 보관과 유통 조건이 다르고 백신별 예방접종 장소도 다양하므로, 백신이 국내에 도착한 후 예방접종까지 민·관·군 합동으로 안전한 백신의 유통과 보관 체계를 마련한다.

유통관리체계 구축(SK바이오사이언스)과 초저온 냉동고 확충(대한과학, 일신바이오베이스, 써도피셔사이언티픽)을 위한 민간업체 계약도 체결돼 단계별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콜드체인 유지가 핵심인 백신의 배송과 보관의 전 과정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온도 유지와 배송 위치 추적의 실시간 관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군은 수송지원부대를 중심으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위기를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할 뿐만 아니라, 백신 수송을 위한 군 인력·호송·경계 등 지원 임무도 함께 수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백신 유통 체계를 견고히 한다.

예방접종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약 250개, mRNA 백신)와 위탁 의료기관(약 1만 개, 바이러스백터백신)으로 구분돼 시행되며 노인요양시설, 중증 장애인

시설 입소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팀을 운영한다.

예방접종센터(시·군·구 단위)는 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시설 중심 대형 실내체육관 또는 대강당 등을 활용

하여 운영하게 된다.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의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을 위주로 선정한다.

이상반응 시 국가가 치료비 등 보상

예방접종 의료인력은 우선 지자체에서 지역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확보 하되, 중앙에서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정공동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인력 지원 외에도 예방접종 관련 교육 추진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와 원활한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전용 예방접종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www.ncv.kdca.go.kr)을 통해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3월부터는 예방접종 가능 시기 및 사전 예약가능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4월부터는 국민비서서비스(행정안전부)와 연계를 통해 예방접종시기, 장소,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해 국민이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해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일정 시간(15~30분) 예방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한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위해 의료인 신고 외에도 피접종자의 적극적 이상반응 점검을 실시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하게 예방접종과 인과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치료비, 병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재난 상황 중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므로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며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하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Q&A

Q. 확보한 백신은 충분한 물량인가?
A. 5600만 명분의 백신은 전 국민 대비 108%로 접종 목표 이행 및 통상적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에는 충분한 물량이다. 다만 백신 제조·생산의 유동성, 면역력 지속 기간의 불확실성, 백신별 이상반응 등이 존재함에 따라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 구매 계약도 추진하고 있다.

Q. 접종할 시기가 되었는데 맞지 못하면 순서가 밀리게 되나?
A. 예약 뒤 접종 당일 발열(37.5도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 뒤 접종을 위해 예약 조정이 가능하다. 단, 백신 접종을 거부해서 예방접종을 기한 내 예약하지 않을 경우 예방접종 순위는 후순위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Q. 백신 선택권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빠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백신을 안전하게 접종하기 위해서는 백신 종류가 아닌 접종 순서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해 접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등 백신 접종을 시작한 다른 나라에서도 개인의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Q. 무증상 감염자나 과거 감염이 되었던 사람도 백신 접종이 필요한가?
A. 무증상 감염 또는 코로나19 감염력과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여부 결정을 위해 백신 접종 전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Q. 백신 접종 뒤 면역 획득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리나? 백신 면역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A.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뒤 방어항체가 형성되는 데는 2주가량 걸린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7~14일 뒤 항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최대 백신 효과를 위해 각 백신별 권장기간 내에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기면역 효과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Q. 백신을 접종해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나?
A. 백신접종으로 100% 면역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지 않거나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또는 시간이 흘러 형성된 면역의 효과가 떨어지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 접종을 했더라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 접종센터 설치 장소는 어떻게 되나?
A. 접종센터는 시·군·구당 1개소 이상 약 250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수용 인원, 교통 편의성, 공간 분리, 별도 주차 공간 등을 고려해, 대규모 공공시설(체육관, 문화센터 등)을 우선으로 하고, 관할 구역내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국·공립병원(보건소)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Q. 백신은 안전한가? 이상반응은 없나?
A. 모든 백신은 생물학적 특성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상반응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접종 부위에서 나타나는 국소적인 반응도 있을 수 있고,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비율이 낮고 예방접종의 효과가 접종을 안할 경우보다 큰 만큼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Q.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하나?
A.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www.nip.kdca.go.kr)을 통해 피접종자나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점검하고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입술·입안의 부종, 두드러기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Q. 이상반응이 생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
A.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예방접종피해 국가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 결정 뒤 결정 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 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된다.

(출처: 정책브리핑 공감 590호)



특별기고



김영석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3년 전을 회상해 봅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소임을 맡을 때만 해도, 조금만 노력하면 사회복지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위치해 있다는 것을 지역 사회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녹록하지 않았고 변화의 시도는 해 보았지만, 만족스럽게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처음 취임사에서 밝혔던 정보와 자원은 이어주고(이음), 오해와 갈등은

풀어주는(풀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도,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는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난 3년간 확고한 사회복지 현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이 얽혀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습관이 박혀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 어떤 접근방법이 필요한 지, 고민만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3년을 생각해 봅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 우리지역의 사회복지수준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얽혀있는 이해관계의 고리를 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 문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문제도, 이런 저런 문제로 정책과 현장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도, 얽혀있는 이해관계의 고리를 풀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특정한 어느 단체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특정 영향력 있

연임의 썩

는 인물이 해결할 문제도 아닙니다. 함께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현장은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는 있었지만 빠르게 임기 3년을 지나쳤습니다. 총회에서 연임을 허락받았지만, 앞으로 3년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솔직히 많이 망설여집니다.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요구도 있지만, 주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신중하게 준비하여 행동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임기 중 실천하고자 하는 몇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군사회복지협의회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회복지 관련 직능단체와의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원론적인 약속일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없기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모두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지는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성이 가장 취약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원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강조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자원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가장 미미한 곳이 사회복지 분야인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초로 돌아가 사회복지개론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을 실천현장에서 활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저부터 지역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사회복지현장에 요구한 속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떻게 하면 질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시설들이 문을 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방법론을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저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앞장서서 그 방법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가 아니고 협의회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자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신건강

코로나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연현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021년 새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 달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계절 탓인지, 2020년 일을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잔뜩 책상 앞에 놓여서인지 1월은 2020년 같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설이 있어 1월부터 새해를 시작하지 못한 것을 안도할 수 있게 해 주죠. 2월에 설이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2020년 설에 외국에서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어왔고, 중국에서는 매우 커졌다. 한국에도 들어왔다 하는 뉴스를 접하면서 이렇게 길게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고 불편하게 할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무더지고 있다고 해야 하나 싶을 정도네요.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일상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닥치자 '코로나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죠. 불안과 두려움 등 정신적 충격을 겪으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과 불안을 넘어 분노가 치솟기에 이르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코로나레드'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급기야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캄캄하고 암담하다고 여기는 마음상태가 되어버린 '코로나블랙'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그 어디에도 출구와 희망은 보이지 않고 좌절과 절망만이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초조합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극단적 선택을 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절망만이 가득한데 어떻게 삶을 유지하고 버틸 수 있을지요. 우리가 심장마비나 기타 질환이 생겼을 때 응급실에 가기 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 타임안에 심폐소생술(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호흡이나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인공적으로 호흡과 혈액 순환을 유지해 주는 응급 처치

법을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도 마찬가지로 '정서적 심폐소생술'이 있습니다. 정서적 심폐 소생술은 갑작스레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의 발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트라우마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약물복용이나 약물증량과 같은 의료적 도움뿐 아니라 격려와 지지, 공감하기, 신뢰관계 맺기 등 정서적으로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인적인 회복으로까지 나아가는 정신질환치료를 의미합니다. 심정지와 다르게 정신질환은 대부분 전조증상이 있어 가족이나 동료들이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무관심하거나 전문적 치료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들의 욕구, 희망, 감정이 무엇인지를 귀담아들으려 해야 합니다. 회복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이들과 깊은 인격적 만남을 거듭하면서 스스로 존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경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의 치료는 대부분 개인에게 있는 정신질환 증상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인간의 내면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정서적 심폐소생술은 옆 사람과 더불어 깊은 공감과 위로를 주고 받으면서 희망의 심장박동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치려고'하는 충동을 억제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풀이는 내면의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분간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우울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감염되었다가 치료받고 회복된 사람들은 외상후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즉, 어느 누구도 지금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이나 고난을 대하면 별 의식없이 이런저런 조언이나 충고를 하곤 합니다. 이것이 상대방의 아픔과 고난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고통과 상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한 번 더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비대면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이러니 하게도 타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 배려, 존중, 공감, 위로, 그리고 희망입니다. 이것은 의사에게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조제할 수 없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정서적 심폐소생술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안수진

오송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사회복지사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내도록 예방적 복지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은 어떠신지,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계신지, 정서적으로 편안하신지 확인한다. 그리고 어르신의 욕구를 확인해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일을 한다. 동시에 생활권 안에서 동년배들과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능을 촉진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중요한 사실은 어르신과 사회복지사들이 이루는 과정이 아닌 이웃, 지역사회

회의 여러 사람이 필요하고 함께 나아가는 서비스이다. 2021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지난 1년간 서비스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어르신들은 노인복지이용시설 휴관, 경로당 폐쇄 등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집에 머물기를 권유하여 침체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르신들도 이웃, 지역사회와 거리가 멀어졌다. 어르신들의 일상은 달라졌다. 아침에 텔레비전을 켜면 뉴스부터 시청한 후 아파트 복도로 나가 걷기 운동을 하고 들어오신다. 그리고 식사 후 다시 뉴스를 시청하신다. 종일 코로나19 관련 기사에 우울감과 불안감이 커지고 오늘 하루 확진자가 몇 명인지, 어디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는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 종일 텔레비전만 틀어놓고 있는거야." "코로나 이후에 애들보고 오지 말랬어, 노인이나가 더 조심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며 창밖만 바라본다. 동네사람과 만남이 줄어들고, 병원이나 시장에 나가는 일상생활에 제한이 되고,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등의 여러 변화로 사람뿐 아니라 사회와의 거

리가 멀어지게 된 것이다. 매일 옆집 어르신네에 마실을 갔던 발걸음이 끊겨가고 이웃 사람들과 모여 담소를 나누던 정겨운 모습도 사라져간다. 어르신들께서는 답답함을 호소하며 날이 좋은 날에는 콧바람을 쐬러나가 맛있는 식사도 하고 기관에 모여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신다. 그럴 때 만났던 동년배 친구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시고 코로나19가 끝나 언제 또 그런 날이 올까 그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계신다. 주기적으로 만나던 방문상담보다 비대면 전화상담 횟수가 늘어난다. 사회복지사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려는 어르신들, 없는 살림에도 사회복지사가 방문하는 날에는 음식을 내어주시는 어르신들의 소소한 낙이 없어지는 것이다. 여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며 아쉬워하는 어르신들의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 사회복지사들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개인별, 지역별 소규모 활동으로 취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교육, 건강, 여가의 활동을 지원한다. 밖에서 하는 활동과 모임 인원수에 제약이 생겼으니 집에 머무는 동안 에너지와 열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필요한 용품은 무엇일까 고민한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국민 모두 어려워 누군가를 마음 편히 만나기도 힘

든 각박해진 시대에 어르신들을 사람과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마스크, 손소독제가 있는 방역키트는 물론이고 코로나블루를 털어내고자 식물, 꽃 등 반려식물키트를 돌려 간단한 소일거리로 적정한 생활에 소소한 재미를 드렸다. 직접 키운 농작물을 경로당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못 하게 되니 저희가 대신 전달해드리며 서로 간의 정을 이어졌다. (코로나블루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이다) 집안으로 모일 수 없어 혼자 집에서 하고 싶었던 활동 욕구를 맞춘 일대일 프로그램을 진행 하여 무료한 시간을 달랠 수 있고 코로나19로 멈춰있던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중단되고 제한되는 여러 변화가 생겼지만 어르신들의 평범했던 일상생활과 건강을 지키고자 새로운 방식으로 서비스가 지원되었던 것이다. 또 코로나19로 빼앗긴 어르신들의 소중한 시간을 희망으로 극복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된다. 어르신들께서 집 밖으로 나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서로의 표정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웃과 동년배와 바깥 구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따뜻한 봄을 빨리 맞이하고 싶다.

코로나19 시대에 어르신들을 만나며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료 법률호닥터 사업 안내

법률호닥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알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 신인정 변호사(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	--	---	---

서비스 신청은 시 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 043)238-0843 / 이메일 : colt0914@gmail.com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호닥터

법무부 · 충청북도 ·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민구조과)

Q.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매주 병원 진료 때마다 모시고 다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나머지 형제들은 장남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라며 동일한 상속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기여분 제도

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 또는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 재산을 더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속재산 분할에서 '효자 중의 효자만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법원은 기여분에 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속재산 분할에서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법원의 판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상속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녀의 부양이 다른 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기여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는 물론 가까이 살며 자주 얼굴을 비친 것만으로도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이제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위 사례의 경우도 상속재산 분할에서 기여분을 정당하게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정보 제공

[코아드]코아드 자동문 무료설치 캠페인

- 접수기간: 상시접수
■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www.coaddoor.com)
■ 선정방법: 매월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월 1곳 선정
■ 안내문의: 189-7081 또는 coad@coaddoor.com 으로 문의 가능

[여송사회복지재단] '함께독서' 도서 무료배포 안내

- 보급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 보급권수: 1기관 최대 2권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childlovesky@hanmail.net)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도서 보급 공지사항- 신청양식 확인- 이메일 발송
■ 신청기간: 수시
■ 배송관련: 택배비 기관 부담(착불 4,000~4,500원)
■ 유의사항: 기존에 신청한 기관은 제외
■ 문의: 여송사회복지재단 사무국 ☎ 02-553-3488

[바보의나눔]코로나19 관련 cpbc라디오 모금 방송 사연 대상자 추천 안내

- 방송명: cpbc라디오(평화방송) 힘들면 전화해
■ 방송일시: 매주 월~토 15시~16시
■ 방송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고 ARS 및 무통장 모금 진행 (방송일로부터 2주일)
■ 진행 과정: 사연대상자 추천서류 메일접수 → 사례 선정 여부 안내 → 방송 녹음 진행(대상자/기관 담당자) → 방송 및 모금 진행 → 모금액 집계 및 지급 → 사용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신청공문 및 대상자 추천서(양식참조), 통장사본 각 1부
■ 제출기한: 상시접수(2주에 사연자 1명 방송)
■ 기타: 모금액 전액을 대상자에게 지급함(ARS 수수료분 제외)
- 사연 대상자 추천은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추천에 한해 접수(지역제한 없음)

- 라디오 방송으로 대상자의 목소리가 노출됨(가명 사용) → 대상자 동의 필수
■ 문의: 나눔사업팀 하서이 (02-727-2511 /apple@babo.or.kr)

[KT&G복지재단] 2021년 수리소리마소리(청각장애인후원사업) 후원금 신청안내

- 신청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저소득 청각장애인(수급자, 차상위, 일반저소득)
■ 지원내용: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후원물품(※기관사업비, 기관후원물품 제외)
■ 지원절차: 후원금 신청 및 서류접수(매월 1일 ~ 20일) → 선정발표(매월 마지막주) → 선정기관에 후원금 입금(2주 이내) → 후원금 사용내역 결과보고 제출(1개월 이내)
■ 제출서류: 홈페이지(www.ktngwelfare.org) 참조
■ 지원금액: 보청기, 인공와우 소모품 등 후원물품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KT&G복지재단] 2021년 행복가정학습지원(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신청대상: 저소득(차상위, 수급, 일반저소득) 가정의 학령기 아동·청소년(만7세 이상 ~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학습과 관련된 물품 구입비 10만원 지원
■ 지원가능물품: 학용품, 문제집, 일반도서, 교복, 책가방, 체육복(학교지정), 실내화 등
■ 선정발표: 매월 마지막주 중 발표
■ 지원시기: 선정발표 후 2주 이내, 기관평의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
■ 신청방법: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신청(복지기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 개인신청 불가)
■ 참고: www.ktngwelfare.org

[굿네이버스]신한금융그룹 지정기탁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3차년도) 사업 안내

- 사업기간: 2018년 5월 ~ 2021년 4월(상시신청)
■ 신청대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정
-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운 개인 및 단체
■ 신청기준: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신청방법: 거주지역 내 신청기관을 통해 신청(개별신청불가)
*신청기관: 굿네이버스 사업장, 사회복지유관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단, 지원금 관리 등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항목: 생계주거비, 교육양육비, 의료비, 학대피해지원, 재해·재난구호비, 희망영양

■ 문의: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무국(월~금 10:00~17:00, 02-6424-1551)
■ 참고: www.shinhan-hope.com

[아산사회복지재단]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SOS 복지지원사업' 안내

- 대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부나 민간단체 지원이 신속히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
■ 신청기간: 연중상시
■ 신청방법: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 신청서 작성
이메일접수(asan-sos@amc.seoul.kr)
■ 문의: 02-3010-2566, 2585

[희망나눔 주주연대]의료·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희귀 난치성 질환, 사고 등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재활치료 등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의 성인 가장(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우편 신청
■ 심사 및 선정절차: 1차 서류 심사(검토) 후 선정자에 한해 2차 추가서류 안내 및 가정방문
■ 문의: 희망나눔 주주연대(02-3789-2555) / hope@hopeon.or.kr
■ 참고: https://www.hopeon.or.kr/html/index

자원 봉사자 모집

▶ 공원어름지기 봉사

관리센터: 청주서원노인복지관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238-3786

▶ 말반찬 배달 봉사

관리센터: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835-4288

▶ 사무보조 봉사

관리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212-9194

▶ 이미음 봉사

관리센터: 즐거운생활재가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216-1365

▶ 가정방문 심리상담 봉사

관리센터: 청주상당노인복지관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288-3060

▶ 중학생 학습지도

관리센터: 남이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70-4149-2345

▶ 저소득 가정 11 멘토링

관리센터: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857-5960

▶ 수영 동아리활동 봉사

관리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286-4736

▶ 유아성폭력예방인형극 공연 봉사

관리센터: 굿네이버스 충북지부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288-9601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충청북도교육도서관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267-4590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신문봉사단, 신문 발행 봉사활동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신문봉사단(단장 이희일)은 지난 1월 28일 청주시 충

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신문봉사를 진행했다. 신문봉사단은 2010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

촉되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희일 단장은 "코로나19 장기

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충북사회복지신문은 도내의 사회복지정보에 대한 신속한 전달매체이다. 앞으로도 봉사에 성실히 참여하겠다" 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sn@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2021 리포이브 상담/교육프로그램 공모
리포이브는 롯데쇼핑과 기대대역의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여성 우울예방/치료 및 인식개선을 통한 여성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사업대상: 전국 종합복지관, 정신건강보건센터, 시도군병원(의료사회사업 관련) 중 선발 된 30개 기관
사업기간: 2021년 03월 29일 - 07월 04일 #결과보고 07월 09일까지
사업내용: 하단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사업비 기관별 지원 (최소 500만원 - 최대 800만원)
구분: 상담분야, 교육분야
대상: 우울여성대상, 부양가족, 관계자, 지역주민대상
내용: - 여성우울관계 요인 치유를 위한 상담, - 우울증을 극복한 여성 자조모임, - 가족과 주변 관계인을 위한 교육, - 여성우울에 대한 보편적 예방교육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1년 02월 16일 - 03월 14일 17:00 까지, - 심사선정: 2021년 03월 19일 17:00 #개별안내, - 신청방법: 기대대역 기대플러스 홈페이지 (http://hope.kfhi.or.kr)
관련문의: 기대대역 CSR팀 고은하 간사 / 02-2085-8125, 채널톡: 기대플러스 오른쪽 아이콘 클릭, 이메일: rejoyce@kfhi.or.kr

영역다툼
이창신 www.bokmani.com
여기 넘어오면 내꺼!
거기 넘어갔으니 니네가 잡아
관할구역